

# 積石槨古墳發掘調査

朴 日 薰

## (1)、調査の経緯

本古墳を發見하게 된 動機는 慶州市內 皇吾洞 「八友亭 로터리」 周邊 方形空地에 將次 三層洋屋 建物の 基礎를 하기 위하여 건축 發掘하던 途中 漏出된 板石이 露出되자 이를 除去하니 石築으로 된 空室에 地下水 가 차 있고 土器가 보이므로 그중 大形 土器 一部를 引揚하여 申告하게 되었다.

本 建築 經營主는 巨創한 建築作業中에 地下에 묻혀 있던 積石槨의 古墳이 發見된 바 發掘의 手續節次로 因하여 作業의 中止를 憂慮하였다. 結凍期가 臨迫한 이 때 許可日字의 所要로 建築上의 損害가 莫甚하므로 當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一方 本 空地는 古 建物を 撤去하고 鐵筋 콘크리트 高層建物 經營은 朝夕으로 변모하는 市街 發展의 中心地帶이므로 善意의 遺蹟發見 申告 精神에 民弊를 끼친다는 것은 事理에 妥當치 않을뿐더러 槨의 天蓋石이 이미 除去되어 水中에 遺物이 보이므로 盜難의 憂慮가 濃厚할 뿐 아니라 또한 外論도 惡化될 것 같아서 不得已 緊急 調査에 臨하지 않을 수 없었다.

## (2)、積石槨 古墳의 位置

古墳의 位置는 市內 皇吾洞 八友亭 로터리 中央에 있던 第四號古墳 (一九六二年發掘濟) 中心에서 東으로 四〇m 距離 卽 로터리 外周 人道 線에서 三、五〇m 地點에서 地下 一m 下位에 含藏된 槨의 天蓋石에

達한다.

## (3)、槨의 構造

人頭大만한 塊體 河原石으로 主軸을 東西로 長 三m、幅約 七七cm 內 高五〇cm의 細長槨形으로 構築하고 壙底에는 栗石을 四cm 乃至 五cm 로 敷設하고 上面은 自然板石을 덮어 天蓋를 이루었다.

## (4)、遺物의 配置 狀態

長軸을 東西로 놓아 西端에 各種 土器類를 副葬하였으나 水中에 浸潤된 土砂와 混合되어 破損狀態로 놓여 있었다. 水中 作業으로 綿密히 檢出하였으나 被葬者의 裝身具는 하나도 없었다. 槨內의 副葬遺物의 配置 狀態로 보아 被葬者의 遺骸는 西枕伸展仰臥한 듯하다.

## (5)、出土 遺物

土器類  
赤色素燒壺三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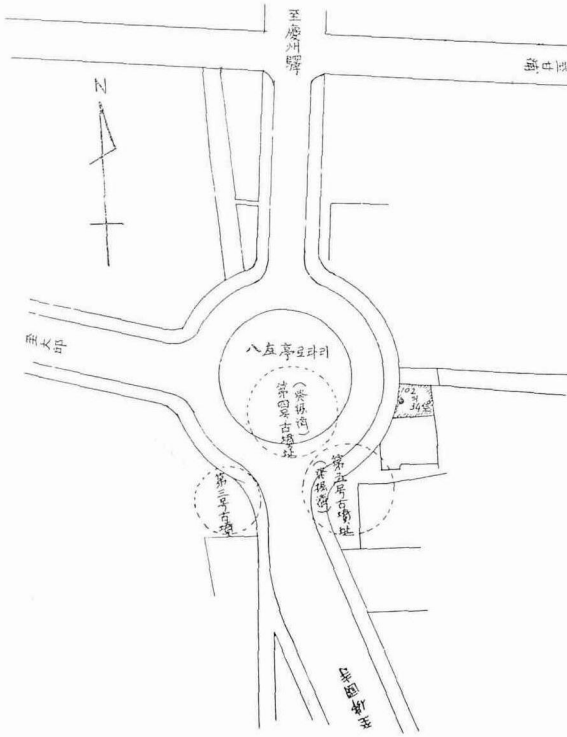


圖 1: 古墳略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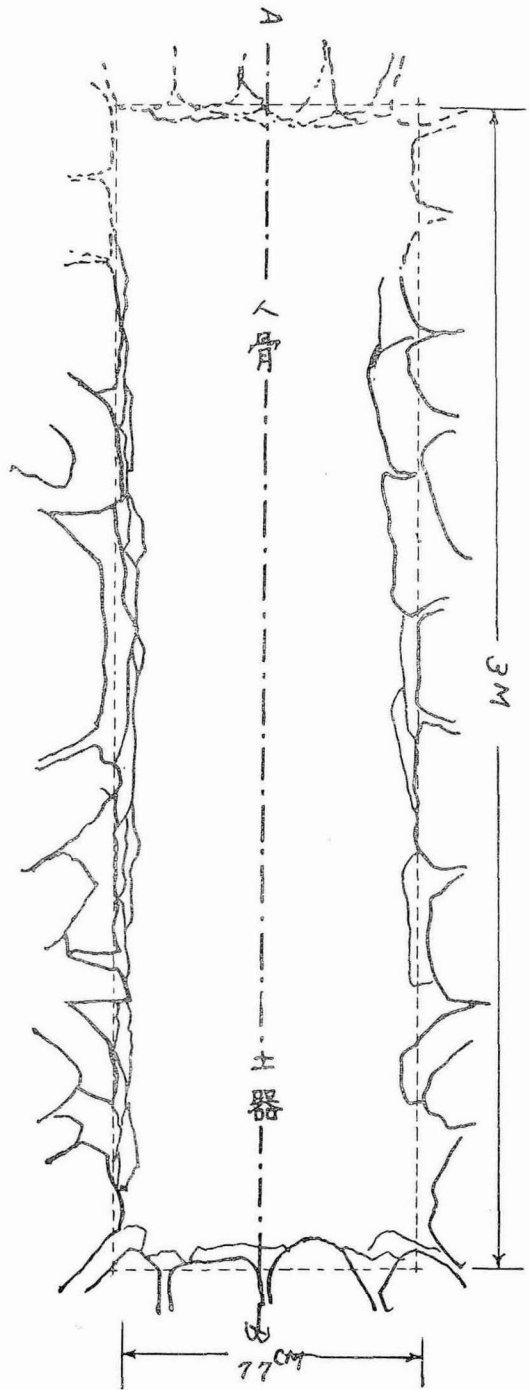


圖 2: 長頸壺

軟質 赤褐色으로 器體는 卵形에 圓盤平底가 붙고 口緣은 內向하여 蓋를 받게 되었고 胴體一方에 蕨手形 손잡이가 붙은 것도 있다.

나, 高坏 三個

灰色 堅質로 無文有蓋式과 無蓋式 二種으로 前者는 台脚部에 竹節線帶로 上下段을 劃하고 方形 透孔을 四孔式 交窓되었고 小形은 環緣 突起部에 鋸齒狀으로 刻하였다. 後者는 深鉢形으로 脚部에 方形 透孔이 四窓이다.

다, 圓底壺 一個

器體는 球形으로 無文이다.

一, 灰色 軟質로 器體 全面에 無節斜文이 旋文되었고 短頸에 外開된 口緣은 B形으로 突起線이 들렸다.

二, 灰黑色 軟質이고 短頸에 口緣은 外開되었다.

三, 頸部가 直立되었고 口部는 盤形으로 되어 口緣은 B形 突起線帶로 둘러 輕快한 手法이다.

四, 胴體는 無文이나 外開된 頸部에 隆起重線帶로 上下區로 가르고 區間에 重線으로 鋸齒文을 계속 있고 三角區間에 圈印文을 捺押했다. 口緣은 內向되어 뚜껑받침으로 되었다.

라, 臺付壺

一, 灰黑色 無文으로 外開된 長頸面에 隆起線을 두르고 台脚部에 長方形 透孔이 여섯 개 있다.

(6), 其他

本古墳의 緊急 發掘에 臨하여 壙內 遺物配置 狀態를 細密히 調査하지 못함은 現地表에서 壙底가 約 2m에 있었고 上部 田畝의 水路變更으로 浸水가 甚하여 壙內는 地下水가 가득 차 있었고 排水를 하기 위하여 바로 길에 우물을 파고 消防署 펌프를 動員하여 排水裝置를 하였으나 地

下水는 四方에서 間斷없이 浸水되어 遺物の 原位置 實測과 撮影은 到底  
 히 實施하기 不可能하여 混濁한 泥水中에 堆積土에 싸인 土器를 더듬어  
 索出하는 方法以外는 없었다. 出土되는 土器類는 三國時代에 屬하였고  
 被葬者의 位置에서는 裝身具類는 一點도 없었다. 또 槨의 西端에 土器

類가 副葬된 反對方向인 東側에서는 被葬者의 脚骨片으로 推定되는 腐  
 蝕된 骨片이 最長 一〇cm 最短 四、五cm等 五片이 檢出되어 遺物箱子에  
 安置하고 佛式으로 慶州市 排盤洞 狼山 남쪽 기슭에 埋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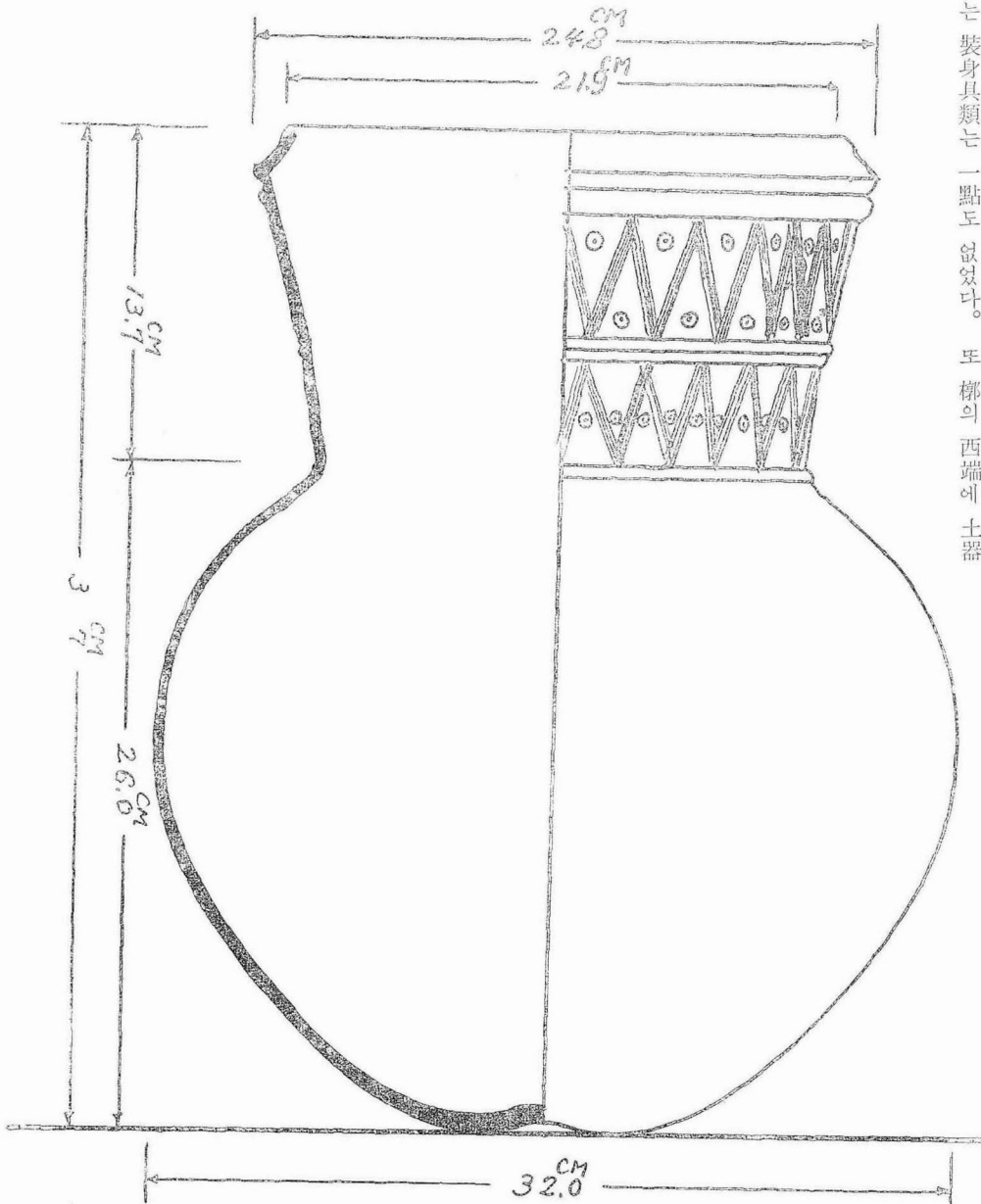


圖 3: 長頸壺